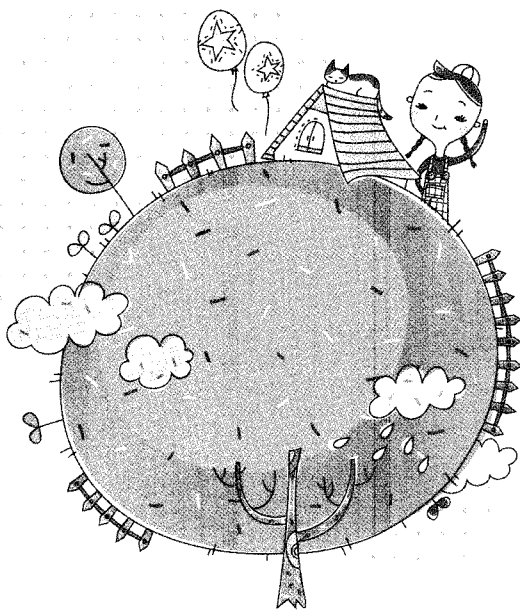


나무를 심는 사람



김경호

(화수원 농장 관리이사)

1 양치기 노인의 나무 심는법

봄이 왔고 해서, 프랑스의 작가 장 지오노의 동화에서 제목을 차용해 보았습니다. '봄'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대지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새 싹이며, 이 무렵이면 누구나 나무를 심어볼까 하는 마음을 먹는 때가 아닐런지요.

장 지오노의 동화에서 양치기 노인은 자기 땅도 아닌 황무지 야산에 작은 구멍을 파서 도토리를 심는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도토리를 쪼아 먹거나, 싹이 트지 않아도 계속해서 도토리를 줌고 심고 하였었습니다.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늙은이가 쓸데없는 일을 한다면서 비웃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며 떠나갔지만, 양치기 노인이 심은 도토리는 훌쩍 사람 키만큼 자라 떡갈나무 군락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숲에는 다른 나무들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물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던 황무지 야산에는 어느덧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좌절감에 젖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그래서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양치기 노인에게서 희망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사이에 마을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황무지가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바뀐 것은 바로 양치기 노인이 참고 견뎌낸 고통과 절망이라는 거름 속에서 피어난 것임을 마을 사람들이 짐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양치기 노인의 노력에 더해 햇볕과 바람과 시냇물이라는 자연이 감동을 받은 탓이겠지요.

어느 해인가, 양치기 노인이 1만 그루의 단풍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단풍나무는 단 한그루도 살지 못하고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양치기 노인은 세상이 무너질듯한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그 다음

해에는 단풍나무가 토질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너도밤나무를 그만큼 심었습니다.

너도밤나무는 너무나 잘 자라 주었고, 양치기 노인이 살던 마을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양치기 노인의 뒤를 이어 마을 사람들 역시 계속해서 나무를 심어 나갈 것입니다.

2 나무란 뭐죠?

얼마 전 소나무 묘목을 심었던 명하가 나무에 대해 물어 왔습니다.

“아빠는 나무를 많이 심는데, 왜 심어요?”라고 물어 왔을 때,

“우리가 심는 나무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란다.”라는 판에 박힌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무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처럼 생산하는 농가가 많은 것이지요. 물론 수요와 공급이 적재적소에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생산 농가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적인 수목 유통 센터가 필요한 것이겠지요.

명하의 여러 가지 질문 때문에 나무에 대해 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있는 다년생 식물, 뿌리는 나무를 단단히 고정시켜 주고, 줄기는 나무의 몸통으로 근간을 이루며, 잎과 꽃과 열매는..... 사전적 의미의 나무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무의 전부일까요? 나무가 없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실 나무는 한번 뿌리를 내리면 평생을 같은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데도, 새와 바람과 같은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이런 나무들과 함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3 화수원 농장에서 나무를 심는 사람들

화수원 농장의 조합원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기 시작한지도 벌써 5년이나 되었습니다. 장 지오노의 동화에 나오는 양치기 노인마냥 송고한 뜻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묘목을 사는 것에

서부터 심고 관리하고 가꾸는데 이르기까지는 많은 고통이 따른 것도 사실입니다. 양치기 노인이 단풍나무를 모두 죽게 한 것처럼, 화수원 농장에서도 많은 나무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대부분의 나무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전라북도 장수의 농장에 있는 서양측백은 그 향기만큼이나 풍성하고, 주목은 그 비늘을 반짝이며 붉은 열매들을 머금고 있습니다. 소나무들도 마찬가지로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4개 농장에는 매화나무와 벚나무와 산수유등의 나무들이 오밀조밀 모여 자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무들과 함께 한 화수원 농장의 조합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철구형! 금년 나이 54세로 예쁜 형수님과 조금만 있으면 품을 떠날 따님과 경기도 일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틈만 나면 남양주 마석의 농장에 오셔서 농장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화수원 농장 조합의 정신적 지주이시죠. 거름을 주거나, 풀을 제거하거나 하는 힘든 일은 잘 못하시지만 늘 전정가위를 들고 다니시며 농장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승환군! 금년 나이 46세로 대학 다닐 때 미식축구 선수로 그 이름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20대 초반 시절 스포츠신문에도 오르내렸던 열혈남아입니다. 화수원 농장 조합이 문을 열게 된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준 친구입니다. 약 5년전 경북 봉화에서 조경수를 생산하는 친구의 형을 보면서 그 형의 년수입이 억대에 이른다는데 충격을 받아 농장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호선군! 부석사 무량수전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절이지요. 부석사의 정기를 받아 태어난 부석면 남대리 출신의 조금은 늙은 청년입니다. 40대 중반을 넘었지만 작고 다부진 몸이 지난날의 그를 말해 줍니다. 농장 관리라는 것이 잔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언제나 묵묵히 일을 하면서 틈틈이 마시는 술(그는 술을 약이라 부릅니다)의 양이 대단합니다.

우리들 역시 나무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